1.글로벌 채권

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은 OPEC의 전격적인 산유량 감산 합의로 유가와 뉴욕증시가 오르는 등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져 내렸다
 - 국채가격, 옐런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가운데 도이체방크발 유럽은행 시스템 불안이 약화한데다 뉴욕증시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져 하락 출발
 - 오후 들어 7년물 입찰 후 오름폭을 소폭 높였다가 OPEC의 산유량 동결 합의 보도로 뉴욕증시가 반등하고, 유가가 상승 폭을 높이는 등 위험 선호가 강해지자 반락했다
 - 美 재무부, $280억 어치의 7년 만기 국채를 연 1.389%에 발행... 입찰 수요 강도를 측정하는 응찰률은 2.47배로 최근 평균인 2.49배와 거의 동일

[미국]
2y 0.76% (+1.4bp)
10y 1.57% (+1.6bp)
30y 2.29% (+1.4bp)

[기타 10Y물]
영국 0.68% (+0.6bp)
독일 -0.15% (-0.6bp)
프랑스 0.15% (-0.7bp)
이탈리아 1.18% (-2.7bp)
스페인 0.89% (-0.3bp)
그리스 8.10% (-8.9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OPEC 산유량 감축 합의 소식에 상승 마감

* OPEC, 현재 하루 3324만배럴 수준인 산유량을 74만배럴 줄어든 3250만배럴로 감축하는데 합의
  - 국가별 산유량은 오는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
  - 감축 보도 후 에너지주 4% 넘게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

* 옐런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
  - "경제가 현재와 같은 경로를 지속한다면 올해 일부 완화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"
  -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'정해진 시간표가 없다'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.
  - "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더 큰 완충 장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대신 소형 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"

* 美 8월 내구재주문, 전월 대비 변화 없어... 예상치(-1.4%) 상회

* <유럽 마감> 도이체방크의 자회사 매각 소식과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

* <상하이 마감> 곧 다가오는 국경절 연휴(1~7일)에 따른 관망세에 투자 심리 악화되어 하락

* <도쿄 마감> 반기 배당락일을 맞아 금융주가 약세를 달린 가운데 하락

DOW30	18339.24	(+0.61%)
NASDAQ	5318.55	(+0.24%)
S&P500	2171.37	(+0.53%)
NIKKEI225	16465.40	(-1.31%)
SHANGHAI	2987.65	(-0.34%)
FTSE100	6849.38	(+0.61%)
DAX30	10438.34	(+0.74%)
CAC40	4432.45	(+0.77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혼조
  호주 달러화 등의 원자재 통화들은 전격적인 OPEC의 산유량 감축으로 상승

유로/달러	1.1216	(+0.0002)
유로/엔	112.90	(+0.26)
달러/엔	100.68	(+0.27)
달러/위안	6.6681	(+0.0035)
파운드/달러	1.30126	(-0.00088)
NDF	1092.30 / 1093.00원...4.45원 하락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원국의 산유량 감축 합의 소식이 전해져 급등
* <국제 금값>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상존과 달러화 강세로 하락

WTI	47.05	(+5.3%)... 지난 4월 이후 하루 최고 상승률

COMEX금 1323.70 (-0.5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2053.06 (-0.47%)
코스닥 686.76 (-0.18%)
원/달러 1096.80 (+0.30)
KTB 110.82 (+0.03)
LKTB 132.65 (+0.31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하락 마감. 국고채 50년물 입찰이 예비입찰보다도 강하게 낙찰됐다는 루머가 돌면서 호조를 보였다는 인식에 장기물 강세가 두드러져 커브 플래트닝됨.
- 다음날 예정된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앞두고 관망 분위기도 감지

1y 1.3260% (+0.10bp)
3y 1.3040% (-0.10bp)
5y 1.3350% (-0.70bp)
10y 1.4680% (-2.60bp)
20y 1.4910% (-1.30bp)
30y 1.5060% (-0.40bp)
CD 1.3400% (0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5.05bp (+0.25bp)
2Y -7.85bp (-0.30bp)
3Y -5.15bp (-0.40bp)
5Y -7.00bp (-1.05bp)
10Y -14.80bp (+0.1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국채선물 강세 영향으로 하락 마감. 증권사 중심으로 거래가 잦았고, 2년물 위주로 거래가 활발.
* CRS 금리도 소폭 하락. 주목할만한 재료는 없었음

*IRS 금리

1Y 1.2825% (+0.25bp)
2Y 1.2575% (-0.50bp)
3Y 1.2525% (-0.50bp)
5Y 1.2650% (-1.75bp)
7Y 1.2800% (-2.00bp)
10Y 1.3200% (-2.50bp)

1*2Y -2.50 (-0.75bp)
2*3Y -0.50 (-0.00bp)
2*5Y 0.75 (-1.25bp)
3*5Y 1.25 (-1.25bp)
5*7Y 1.50 (-0.25bp)
5*10Y 5.50 (-0.75bp)

*CRS 금리

1Y 1.1950% (-1.00bp)
2Y 1.0400% (-1.00bp)
3Y 1.0100% (-1.50bp)
5Y 0.9450% (-1.50bp)
7Y 0.8900% (-1.50bp)
10Y 0.8600% (-1.5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도이체방크, 영국의 자회사 '애비생명보험' 매각
  - 약 9억3500만 파운드(약 1조3000억원)에 애비생명보험 매각 합의... 매각 자금이 유입될 경우 도이체방크의 기본자기자본 비율은 0.1%포인트 올라갈 전망

* 도이체방크 CEO '독일 총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것... 정부 구제 받는것 있을수 없는 일'

* 도이체방크 우려 증폭... 엔고 심화 가능성 <닛케이>
  도이체방크 불안이 고조되자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. 언뜻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도이체방크 주가와 달러-엔 추이가 비슷한 것은 '리스크가 고조될 때 피난처는 엔화'라는 고정관념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

*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'고용시장 호조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낮아'...기준금리를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

* 시카고 연은 총재 '미국 경제는 정책 금리가 정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실질 금리가 낮은 시대에 남아있을 수 있다'

* ECB 드라기, '유로존 정부들은 금리가 안전하게 마이너스 영역에서 '0'위로 오르게 하려면 성장을 부양시키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' 촉구

* 독일-8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10.2-> 10.0 (예상:10.2)

[국내]

* 국고채 50년물 입찰...기재부 "30년물만 축소 아니다" 확고
- "만기물별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르게 축소할 계획이고 특정물에 한정해 축소하지는 않는다"

금일 예정 지표

[구로다 BOJ 총재 연설]
[제롬 파월 연준 이사 연설]
[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]

[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]
[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]

일본-소매판매(YoY) (예상:-1.8%, 이전:-0.2%)
독일-9월 실업률 (예상:6.1%, 이전:6.1%)
-9월 CPI (MoM) (예상:0.0%, 이전:0.0%)
미국-2분기 GDP(QoQ) (예상:1.3%, 이전:1.1%)
-8월 펜딩주택판매(MoM) (예상:0.3%, 이전:1.3%)
-주간실업보험청구자수 (예상:260K, 이전:252K)
한국-10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(이전:77)